

‘규제자유특구’ 7월 첫 지정

新사업·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자유도 높아진 ‘규제 샌드박스’ 14개 시·도서 47개 사업 준비중

기존 규제가 신(新)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첫 지정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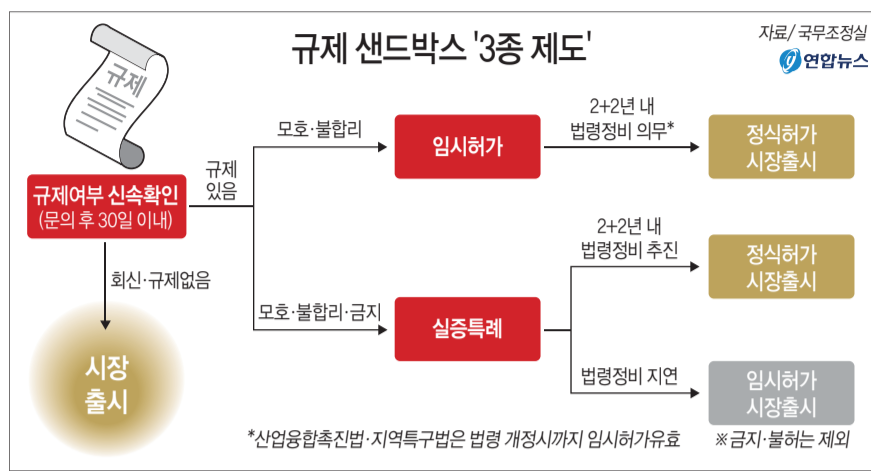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산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준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성낙영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예비 수요 조사를 해보니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추진할 사항을 신청할 텐데 수요를 보면 두 자릿수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3월에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하겠다”며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7월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특구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금호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벤츠 SUV ‘G-클래스’에 공급

금호타이어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프로드형 SUV(스포츠클라이머차량) 뉴 G-클래스에 OE(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979년 출시 이후 40년만에 풀체인지된 2019년형 벤츠 뉴 G-클래스는 금호타이어의 전용 타이어인 솔루스 KL 21 제품을 장착한다. 솔루스 KL 21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합한 타이어로 높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갖췄으며, 대칭 패턴을 적용한 넓은 트레드로 낮은 회전저항과 높은 구동력, 탁월한 주행 안정성 및 정숙성 등이 특징이다. 또한 고무와의 친화력을 높여 특수 가공한 컴파운드를 적용하여 연비 및 마모를 향상 시켰다.

금호타이어와 벤츠의 관계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국내 업계 최초로 벤츠와 손을 잡았고, A-클래스에 첫 OE 제품을 공급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와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또한 스포린터, 비아노, 스마트, 비토 등 여러 차종에 타이어를 공급했으며, 국내 업계 최초로 벤츠에 트럭용 타이어

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G-클래스 OE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벤츠의 밴과 SUV 등 다양한 제품 공급 라인업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에도 상위 차종으로 공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 외에도 북미 시장에서의 OE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벤츠, BMW를 비롯해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GM, 포드 등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에 완성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이명진 금호타이어 상품개발2담당 상무는 “이번 벤츠 뉴 G-클래스 OE 공급은 금호타이어의 제품이 메인 규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금호타이어는 앞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SUV 수요에 맞춰 고객사와 운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SUV 전용타이어를 개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솔루스 KL21 /금호타이어

LG화학, 中 난징에 1.2兆 증설투자

전기차·경전기 이동수단 등 아시아·세계 수출기지로 육성

LG화학이 배터리 분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난징에 1조2000억 원 증설 투자에 나선다. LG화학은 중국 난징시와 배터리 공장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중국 난징 현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란샤오민 난징 시장, 장위예지엔 난징시 부시장과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김종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LG화학은 난징 신강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1공장과 소형 배터리 공장에 오는 2020년까지 각각 6000억원,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배터리를 비롯해 LEV(Light Electric Vehicle·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통칭), 전동공구, 무선청소기 등 Non-IT용 원통형 배터리의 급



중국 난징에 위치한 LG화학 소형 배터리 공장 전경. /LG화학

속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장조사사업체인 B3에 따르면 원통형 배터리 세계 수요는 2015년 23억개 수준에서 신시장의 확대에 따라 연평균 27% 성장해 올해 60억개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전지사업본부장 김종현 사장은 “이번 증설을 통해 전기차 뿐만 아니라 경(輕)전기 이동수

단, 전동공구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난징에 위치한 세 개의 배터리 공장을 아시아 및 세계 수출기지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난징 신강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두 개의 배터리 공장 이외에도 빈강 경제개발구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중진공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작년 10월 기획재정부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중진공은 선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학력, 나이와 관계없이 직무수행 역량과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잇따라 채용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졸자만 채용되던 ‘사무지원 직무’의 경우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전문대졸자 8명이 합격했다. 민간기업에서 팀장급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44세 지원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됐다.

중진공은 또 인재경영실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 구축과 균형 인사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인사가 조직 혁신의 출발”이라며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투명한 과정을 운영해 정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국내 펀드 순자산 544兆 ‘역대 최대’

금투협 ‘2018 국내 펀드시장 동향’

작년 한 해 펀드 순자산이 37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순자산 상승이 주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국내 펀드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은 5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7조4000억원)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펀드 순자산은 2015년 말 414조원, 2016년 462조원, 2017년 507조원 등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 실물펀드의 작년 말 순자산이 14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8조7000억원(24.2%) 증가했다.

채권형 순자산도 103조1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7.7%) 늘었다.

반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79조9000

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 단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도 90조3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줄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부동산·특별자산 등 실물펀드 순자산은 크게 늘었다”며 “MMF는 카타르 국립은행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이슈와 연말 자금 수요 영향으로 순자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모와 공모펀드 시장 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213조6000억원으로 3조9천억원(1.8%) 감소했으나 사모펀드는 330조7000억원으로 41조3000억원(14.2%) 증가했다.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를 추월한 2016년 이후 격차는 2016년 말 38조원, 2017년 말 71조8000억원, 작년 말 117조1000억원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LG전자-네이버, 더 나은 로봇 만들기 ‘맞손’

클로이 안내로봇에 ‘xDM’ 적용 생활환경지능 기술 고도화 협력

LG전자가 네이버와 함께 로봇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2019에서 서로 부스를 방문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했

다. LG전자 노진서 로봇사업센터장과 네이버랩스 석상욱 헤드가 자리를 오갔다.

목표는 고객들에 실질적 가치와 감동을 주는 로봇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첫 번째 과제는 LG전자 ‘클로이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 플랫폼 ‘xDM’을 적용하는 것이다. 로봇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와 네이버가 로봇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왼쪽)과 석상욱 네이버랩스 헤드. /LG전자